하루를 시작하며

'2020 도민 정책평가단 워크숍' 후기

고 춘 옥
시인

지난 9일 '도민 정책평가단'을 통해 정책 계획 단계부터 부서에서 추진할 핵심과제를 도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핵심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열린 '도민디자인, 2020 도정 핵심과제 워크숍'에 다녀왔다.

워크숍 이틀 전에야 도민평가단으로 참석할 수 있냐는 문자를 받고 나서, 참여자 수가 모자라 선심 쓰는 척 값싼 인력을 동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간다고 했다. 그 '공무'는 평상시 그들답지 않게 토요일에 한다고 했다. 우리들의 공무원은 어지간해서는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인은 그 원칙대로 공무를 보아야 한다. 하루 일과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공무를 포기해서 '어쩌다 착한 도민'이 되는 걸로 갈무리 하는 것이 '도의 정책상 가장 좋은 관행'이 되어버렸다. 오죽했으면 여당, 야당보다 더 큰 당이 공무원당이라는 말까지 있겠는가. 이런 도정이 눈높이를 낮추는 이유가 꽤나 궁금하기도 했다.

숍행사는 분과별로 각 부서의 팀장이 올해의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평가단이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진행평가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성과수당에 반영한다는 것이니, 도정이 체질 개선을 한다고 '설마' 하는 심정이었다. 도정 주최 측에서 필요한 의견만 듣고 원탁회의를 일방적으로 끝냈던 전적이 있어서다. 원탁회의 본질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참여자들의 토로에도 아랑곳없었다. 꼭, 소중한 시민권을 뺏긴 기분이 그럴 것이었다. 옆자리에서 한숨소리가 들린다. 그쪽으로 눈길을 보내니 "정치 쇼 같아서 말이죠" 한다. 도정의 겉만 화려한 업적 게임에 이골이 났다는 말투다. 발표하는 부서의 팀장들 뒤로 소속 팀원들의 눈과 귀가 열심히 평가단의 표정과 말을 좇아다닌다.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는 내면이 기분 좋게 뜨꺼운 것들을 끌어올린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어림잡아 삼일은 치러야 할 분량의 행사다. 약식이라지만 세시간 안에 아홉 부서의 정책과제를 듣고 질의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 무리수다. 요식행위로 비치기에 충분했다. 사전에 준비가 필요했다. 평가단은 미리 정책과제를 학습하고 안건을 들고 참석해야 옳았다. 이런 소리만 요란한 도정 정책홍보행사에 동원됐다고 치부하려는데 뭔지 모를 아쉬움이 꾸역꾸역 밀려든다. 평가단의 의견을 경청하던 팀원들의 태도는 분명 '될 성 부른 나무의 떡잎' 딱, 그것이어서다. 나중에 워크숍 3일 일정을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다 듣고 나서야 도정에 대한 도민의 불신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한 몸인데도 말이다.

물론 각 부서의 팀장들이 들고 온 정책과제들은 인간의 넘쳐나는 욕망만큼이나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열린 도정이 어느 핀란드 정치철학자의 '공정한 분배 즉, 어떻게 시민 다수에게 소수에 집중된 권력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가 민주주의란 표현이 갖는 핵심적인 함의다'는 논제를 위해 첫 발을 뗐다는 건 참으로 오랜만에 기대해 볼 만한 가치였다.

열린마당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이면 OK

김 수 연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2012년에 처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시행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고 낯선 용어이다. 수요 기관들조차도 여전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다는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감도장을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소지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급하게 인감도장을 변경해야할 경우에도 주소지가 아니면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생기곤 한다.

이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을 사전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부정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거래 상대방과 수임인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보다 더 안전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아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요가 매우 낮아 안타깝다.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감과 달리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해야 한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분실 및 도용 시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인감과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재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보다 더욱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명이 보편화 돼 가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 이제부터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용해보면 그것이 가진 편리함과 안정성의 매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소비 인기몰이

"정기적인 만남의 장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돕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범도민 소비촉진운동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착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대감이 상승.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관별 공동구매와 '드라이브 스루'방식 판매를 통해 현재까지 50.5t(판매금액 1억7800만원)을 소비.

도관계자는 "제주지역에 착한 소비문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오은지기자

읍 방문 지원 동행서비스

○…제주시 구좌읍과 자치경찰단 송당행복치안센터가 국가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읍 방문을 지원하는 동행서비스에 나서 눈길.

이 서비스는 국가재난지원금의 읍면동 방문접수가 시작되면서 거동불편·장애인 1인가구 외에 치매나 고령가구 등 방문이 어려운 가구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목적.

읍 관계자는 "읍사무소로 전화하면 확인 후 송당행복치안센터에서 읍사무소 방문부터 신청, 안전한 귀가까지 지원한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16년 연속 산불없는 해' 달성

○…서귀포시는 '16년 연속 산불없는 해'를 목표로 총력을 다 한 결과 산불 없이 봄철 산불기간을 마무리하며 안도의 한 숨.

서귀포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청명·한식·어린이날·지방선거일 등마다 맞춤형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는가 하면 불법소각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

강희철 공원녹지과장은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힘써준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산불조심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현영종기자

사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의 경영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유치한 시내면세점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아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내면세점 개점 이후 엄청난 영업 손실이 지속되면서 직원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제주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사실상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은 해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적자 규모가 적잖습니다. 2016년 2월 중문관광단지에 개장한 후 2018년 1월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한 시내면세점은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예상했던 시내면세점이 경영난으로 두 손을 들었습니다. 4년간 누적 손실액이 26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개점한 항만면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크루즈관광객을 겨냥해 항만면세점 조성에 99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준공 이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철수에 이어 항만면세점도 포기 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면세점이 개점할 때만 해도 기대가 컸습니다. 제주신화월드에 입점할 당시 5년 안에 1000억대 매출, 360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커녕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개점 4년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엊그제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종태 의원이 지적한 시내면세점의 손실액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시내면세점 운영으로 발생한 누적 손실액이 제주도의 재정 지원 127억원 등을 모두 합치면 무려 500억원이 넘습니다. 돈 버는 것은 고사하고 '돈 먹는 하마'가 된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대수술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올해산 마늘수매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

농민들이 올해산 마늘수매가 ㎏당 2000원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늘 유통흐름을 볼 때 높지않을 최종가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몇 달전 계약가보다 크게 낮아졌고, 정부 수매가보다도 낮게 책정돼 농민들의 반발·허탈이 심합니다.

제주마늘협의회 농협조합장들은 지난주 올해 수매가격을 ㎏당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12월 결정한 농협 수매계약가 2500원보다 크게 낮고, 정부 수매단가 2300원보다도 적습니다. 농협은 최근 포전매매 가격과 시장상황을 반영했고, 수매한 뒤 수익이 더 나면 돌려줄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몇 달전 농협 스스로 정한 계약가보다 500원을 더 내릴 정도로 시장 예측을 왜 제대로 못했는지, 농협이 다수 조합원 소득보장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역할론이 분명한데도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게 목적인 정부수매보다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는 전례없는 상황을 초래해야 했는지 등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습니다.

제주마늘생산자협회 등 농민들은 18일 회견에서 "이번 수매가는 농민의 삶을 짓밟는 결정이며, 정부 수매가보다 낮은 농협수매 가격 책정은 상상못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고 반발했습니다.

농협은 회복 기미가 안보이는 국내 유통상황에다 적자 발생시 자초할 조합경영 위기 등으로 계속 고민입니다.

반면 농민들은 산지폐기, 면적조절 등에 불구하고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매가로 삶을 통째로 잃을 위기에 절규합니다. 마늘농사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생산비도 높은 고비용구조여서 더욱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마늘제주협의회가 수매가 재논의 방침이지만 해결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도와 농협이 사태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사후약방문'은 더 이상 안됩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경주김공 대일(향년 9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5월 20일

아 들 김상혁 며느리 부수열
두혁 김애란
상진 공정임
상호 고정심
딸 김선희
영희 사 위 양정식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양공 한진(향년 6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5월 20일

부 인 김순종
아 들 양문석 며느리 정영희
딸 양연재 사 위 이범희
양희재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급매
• 품 목 : 운석 1점
• 감정가 : 20억원
• 조 건 : 매매 또는 대물교환
연락처
010-4855-601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